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5.(수) 배포 즉시

24년의 도피, 그 끝은 구속이었다!

-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끝까지 추적 후 구속

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(청장 양정열)은 11월 25일(수) 노동자 18명의 **임금 및 퇴직금 1억 9천여만 원을 체불**하고, **24년간 해외로 도피**한 반도체 설비업체 대표 **A씨를 구속**했다고 밝혔다.

구속된 A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반도체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**2001년 노동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**를 받고 있다. 당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,865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**상당한 규모의 체불액**으로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.

A씨는 수사 과정에서 **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고 허위 진술**하였으며, **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유선으로 약속한 바로 다음 날인 2002년 4월 23일 미국으로 도피**하였다.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A씨는 지난 10월 13일 **미국 여권을 이용하여 24년 5개월 만에 국내에 입국**했다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**A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출국정지 조치**하고 **소재 추적에 착수**하였다. A씨는 입국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를 체류지로 신고하고 단기 선불폰을 사용하는 등 **수사망을 회피**하였으나,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**끈질긴 추적과 수사를 통해 A씨를 11월 23일 체포한 후 11월 25일 구속**하였다.

양정열 청장은 “**임금체불**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**중대한 민생범죄**로, **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**”라며, “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가 장기간 소재를 감추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**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악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**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기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	책임자	과 장	김상진 (031-259-0344)
		담당자	노동감독관	박홍원 (031-259-028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